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합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선원의 대형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양대 선원 ●FAX: (031)470-3116



# 닥치는 것 마다 앓고 가는 것 막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

(전번 호에 이어서)  
그래서 나중에 고맙다고 그러길래, '날 더러 고맙다 그러지 마라. 당신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고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도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많은 것 같지만 나는 여기서 여러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 하나만 보셨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몸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을 보십시오. 이심전심으로서 마음과 마음이 전해졌을 때에 광력도 전력도 자력도 통신력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병고도 있어도 그 안에서 광력으로서 모든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더러 "병만 고치는 것이 제일인가?"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 병을 앓으면서 의욕이 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내 몸이 가루가 된 돌을 먹은 돌, 그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할겁니다. 앓아 닳는 거 마다 하지 말고 가는 거 잡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법이요, 바로 우리가 세세생생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보배인 것입니다.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언짢은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한테 이익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남에게 해로운 것을 서슴치 않고 하고, 또는 그저 남이 해롭든지 않든지 자기가 그냥 불속불속 해버리는 그런 마음, 조금만 화가 나도 불속 그냥 뱉어버리는 안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왼쪽은 잠재의식 쪽, 바른쪽은 현실의 시각적인, 감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거기서 굴러서 잠재의식 쪽으로 가서, 잠재의식 쪽에서 또 나올 때는 거기를 거쳐서 현실로 나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인간의 두뇌가 그렇게 돼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옹도나 이름을 잘 모르지만 구조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식들이 잘 못한다 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위하는 게 돈을 많이 주고 잘 입히고 잘 먹여서가 아니라 내가 한 마디에 정을 주고 한 마디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말 한 마디, 한 생각을 잘 할 수 있다면 이말을 하지 않고 자손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고, 또 사회도 문란하게 어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이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체험을 해서 자기 자부처가 한마음 속에 있다는 점, 부처님께서도 아무 말 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서 한마음을 보여주시고 꽃 한 송이 들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셨으니, 한마음을 한 자리에 한 바로, 평발이라는 도리를 전부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니 평발이라는 자제는 바로 진드기의 발 하나도 내 발 아닌 게 없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손도손 하면 질문도 좀 들어오기도 하고 서로 토론도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게 있죠. 또, 여러분이 병고 없이 건강하고 젊게 사시려면 어떻게 할지 알고 산다는 거, 그건 왜냐? 지구가 돌아가는 대로 선풍기가 돌아가는 대로 그냥 여여하게 같이 마음이 걸리지 않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일년 살 거를 5년 더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5년이 더 젊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느릿느릿 걸려 가지고는 거기에 같이 한참서 돌아가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늙고 병들게 되지만 거기에 같이 돌아간다면 1년 돌아갈 거를 5년을 더 돌아간다면, 10년을 더 돌아간다면 얼마나 젊어질지? 남들이 안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일체 모든 과학에 대해서, 천체물리학이든 과학이든가 지리학이든가 심성, 이 전체가 다, 생물학이든 모든 것을 다 그 마음 한 속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보배가 여러분한테 있고, 여러분이 어디 부러져서 병이 들거나 이리저리 앓았다면 여러분

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부러졌다 하더라도 의사의 손이 바로 내 손이요, 의사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의사의 몸이 내 몸이라면 바로 자기가 찍어서 수술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잘 못하면 의사가 되고, 자기가 자기 수술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도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저 사람이 와서 별말도 안 하는데 뭘 그런가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행을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써 부부지간에도 남의 탓을 하지 말고 형제지간에도 부모자식간에도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비로운 행을 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스님, 우리 손주가 하나 있는데, 머느리가 죽고 아들이 재혼을 하고 나서 그 손주가 자꾸도 독질을 해들어 오고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너무나 불쌍하게 매를 맞고 그러는 걸 보면 그 할머니는 가슴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살점이 미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항상 자기 한마음 속에서 등을 밝혀서 그 손자를 위해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애는 너무나 착해지고 정직해지고 고등학교에 다니더니 대학에도 입학 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머니의 소원도 풀듯이,

## 스스로 부처 될 수 있어요

- 기만히 있으면 부처요
- 생각하면 법신이요
- 몸이 움직이면 화신

그런 할머니도 그렇게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장차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또 이 세계의 원력자가 되고, 세계를 조절할 수 있는 원력자가 돼야만이 우리 나라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물리가 터지게 마음을 내서 한마음이 돼준다면 얼마나 이익이 오겠습니까? 내가 잘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했다고 내세우지 말고, 아집과 아상, 또는 욕심을 다 버리고 묵묵히 내가 하고 싶은 데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세, 모든 생명을 살리는 자비를 가진다면, 의리와 도의, 사랑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바로 계율도 울바로 지키고 해안이 열려서 계정 해를, '해도 정이요, 계도 정이니' 그 정마당 공해서 없느니라' 했다는 그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구절 구절이 부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런 이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거 한 가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중에 공부해 들어가려는 분들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런데 본래는 신기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자기에게 잘 생각해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하면 법신이요, 몸이 움직여지면 화신이다 이겁니다.

인과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까도 쓰레기 버려서 그 인연의 인과로서 먼저 같이 일어났던 세상이 그 집에 와서 인연을 맺을 때에 병이 들어서 필멸 뛰고 바깥으로 헤집고 그래서 식구들이 고생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내 기만하 보니까 동네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 갖을 하고 야단법석이 날더러고요. 기독교인인데, 그것

도, 그런데 나는 기독교다 불교다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라서 가 없고 죄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모르는 게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잠깐만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동네 일이나, 갖을 하고 징을 두드려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니 차라리 그러를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불러다가

그런데 때로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겠구요.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무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벌써 겁데기를 벗고 다시 밝게 만들고 다시 탄생을 하고 그렇듯이 인간도 역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으면 그만일 거 아무렇게나 살자, 집에

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꿈에 그 친구가 보이거든 하면 시집을 못 가게 되고, 시집을 간 사람은 또 애가 떨어지는 고통이 오고 시 탄생을 하고 그렇듯이 인간도 역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으면 그만일 거 아무렇게나 살자, 집에

또 집에 들어가면요, 어느 때는 왜 그런가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나도 실험하느라고요, 예전 얘기도 보니까 글세 시 어머니가 왔는데요, 죽은 혼백이 갈 줄을 모르고 욕심이 나서, 재산을 두고 죽어서 "애, 아무래야 이걸 좀 날 좀 싸다오" 하고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들

## 인과가 왜 무서운가요

- 죽으면 그만 아무렇게 살자
- 함부로 침 뱉고 쓰레기 투기
- 그 폐해 자기한테 되돌아와

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몸이 있어서 보고 듣고 그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머느리를 한 대 찌조, 화가 나서, 한 대 찌조머느리는 그날부터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어서 애들을 낳을 때 다 죽게 된 거예요. 세상에, 양쪽에서 받치고 한 발짝도 떼 놓지 못하고 온 겁니다. 그러나 딱 떼서 병을 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돌 아닌 것만 알라. 한마음 네 주인공에다가 모두 맡기고 거기서밖에 낳게 할 수 없다고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차차 가니까 들고 일어서고 그건 그것대로 돌아다니게 돼서 인간의 아는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환토를 해가지고 잘 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지금 법사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데 50%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통스럽고 삶의 보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그 맛을 안다면, 이 세상을 다 존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시자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바로 여러분의 몸 속에, 그 허망한 속에 진짜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마디로 그냥 운만 띄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말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쁜 분들은 집에서 편지를 하기도 하고, 또 책들을 보기도 하고, 15년이나 18년 동안 등이 구부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에 드러누워 있던 사람도 그 책을 100독을 하고 꿈을 꾸었는데 이 젊은 놈이 만년 드러누웠다고 하면서 작대기로 그냥 넘겨치고, 꿈에 그러니까 '아이구!' 하면서 벌떡 일어난 것이 진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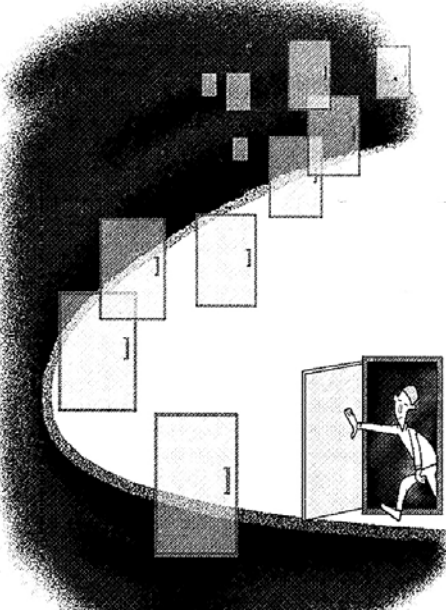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말을 시켜보니까 벌써 시아버지가 머느리가 된 겁니다. 머느리가 시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더러 담배대 가져오라고 그러고, 담배대에 담배 끼어오라고 그러고 '마누라' 이럽니다. 머느리가, 그런 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뜨거운 것은 뜨거운 걸로 고치고 찬 것은 찬 걸로 고쳐야죠. 그것은 약이나 물질이나 말로서 고치는 게 아닙니다.

## 자식을 위한 건

돈 많이 주고 잘 입히는 것보다  
정·사랑 담긴 한마디가...

영혼은 그걸 알고서 오히려 마음의 고개를 꼭 수그러고 자정해서 오히려 건강하게 도와주고 자기는 자기대로 환생을 합니다. 우리가 헛바퀴 돌듯 돌아가지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별성도 그대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겁데기를 벗으면 다시 그 겁데기로 인해서 우리 사는 데에 떨어지기도 하고 딱 떼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자원이 되고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돌아가면 그만이지 하고 쓰레기 탁 버리고 안 보이는 곳이라 누가 안 본다고 해서 아무 데나 그냥 침 탁 뱉고, 커피 마시고 아무데나 그냥 마시던 컵 버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담배 피우다가 담배꽂이 해 버리는데 이것이 누구한테도 가느냐 하면 자기한테로 다시 가는 거지요. 왜냐? 자기가 버렸다는 걸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입력입니다. 입력이 됐기 때문에, 도청기와 같아서 언제나 그림자처럼 여러분을 따라 다니니 그것을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종교를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데 역점을 봐야 됩니다. 아아.

그것뿐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잘못되면은 조상의 탓을 하죠. 그런데 왜 그것도 그러냐 이겁니다. 오늘 온 여기 와서 인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 하나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이익하게 하고, 여러분이 이익해야지 내가 이익하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날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이것을 아셔야 만이 앞으로 시대대로 지금, 점차적으로 어떠한 시대가 왔습니까? 즉 말하자면 미생물의 시대로부터 또는 곤충의 시대로부터 얼마나 거치고 거쳐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 왜 가고 한번 짚고 넘어가고 벗어날 줄 모른다면은 우리는 세세생생에 고통을 받게 되고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산더미 같은 돈을 내놓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피땀을 흘려서, 아니 땀을 뺀다, 땀 방울의 땀을 가지고 한 달을 사시려면은 애쓰실 텐데, 여러분이 자립자족해서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좀더 이익이 있도록, 병원에 갖다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한 달이면 15만원이 든다, 어떤 사람들은 20만원이 든다, 어떤 사람은 뭐 10만원이 든다, 5만원이 든다 그러는데 그것도 식구 나름이죠. 가정마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것만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병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에 가한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환이나 병고 액난, 답답한 마음과 더불어 가난한 자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여기 와서 밭도 끝도 없이 공부해라, 마음공부 해라 이한다고 홍보하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다 목적을 두고 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공부를 해서 내 몸과 내 가정, 내 자식, 내 나라, 내 나라를 위해서라면 세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주와 직결 되어있는 이 설득을 다 파악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인간으로 생겨서 그 도리를 알아야 만이 인간의 도리를 취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부 공했다고 하고 무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볼 겸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더 하기 싫는데 안 해야 올겠지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율이, 음파가 여러분 마음 속에 착박 들어간다면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한테는 그렇습니다. 음파가 다시 돌아 온다면은 바로 난 말하기가 싫으니까요. 왜? 어떠한 병자라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이런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요거 얘기해드리고 끝내버리게요.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너무 장중해서 그렇습니다. 아를 여섯을 데리고 소금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은 정신분열증으로서 방에만 있기 때문에 소금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이다 보니 텐트를 치고 자식들은 그 옆에 살게 하고, 남편을 방에 가두고 자물통으로 잠그고 선 밥만 넣어주고 소금장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돼서 항상 그이는 남편을 위해서 뭐 다닌다 안 다닌다는 얘기도 없이 소금을 싣고 팔고 나서 팔기 전에 먼저 한 공기 떠놓았던 소금을 저녁나절에 가지고 오거나 아침에 팔러갈 때에 갖다놓곤 했습니다. 소금 한 공기를 더 받으면 될 함니까마는 그것도 받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의 정성이니까 누구 주고 안 주고 간에 공양간에다가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님 저는 자물통으로 잠궤 놓고 갑니다' 이거 한마디면 고맙습니다.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시주할 게 많이나 겁나겠습니까? 누가 재산을 헐어갈 테니 걱정입니까? 재산을 헐어갈려고 누가 속이는 말을 할 테니 걱정입니까? 스님, 자물통으로 잠궤 놓고 갑니다. 그거 한 마디 하고는 바쁘니까 그냥 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장사 하는데 김밥을 팔아서 대달라고 하는 공장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만들어서